

설명결합사전의 어휘의미 기술*

홍재성·박동호·고길수

1. 서론

어휘는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다. 화자는 문장을 구성하는 데에 필요한 어휘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이 지식들은 어휘가 어떤 뜻을 전달하고, 어떻게 발음되며, 문장 내에서 어떤 위치에 놓일 수 있으며, 어떤 어휘들과 결합하는지에 관한 것들이다. 특정 언어의 어휘에 대한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외국인 학습자의 경우, 어휘 사용은 불완전하거나 불가능하게 된다. 이들은 언어사전을 통해 어휘 사용에 필요한 지식들을 전달받고 습득한다. 언어사전에는 개별 어휘의 사용에 필요한 지식들이 의미, 형태, 통사, 속어 정보 등의 유형에 따라 구분되어 있으며 각 유형에 대해서 필요한 정보와 구체적인 예들이 기술되어 있다.

어휘의미란 어휘가 문장에 사용되어 전달하는 뜻에 관한 지식으로, 해당 어휘를 다른 어휘와 구별해 주는 핵심적인 정보이다. 또한, 이 의미의 여러 속성들은 형태·통사적인 특성에 반영되어 어휘의 용법을 결정한다. 이와 같은 이유로 기존의 언어사전들은 표제어 항목을 먼저 의미로 분할하고, 각 의미에 대해 필요한 정보들을 기술한다. 어휘의미는 형태를 통해 전달되는 내적 지식으로, 어휘의 외적 행태에 직접 드러나지 않는다. 다른 유형의 지식들의 경우, 개별 어휘를 정밀하게 관찰하여 그 행태를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법만으로 만족스러운 어휘의미를 추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어휘의 의미성분과 속성이 어휘의 행태에 어떻게 반영되는지가 완전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어휘의 의미성분과 행태의 관계가 불분명하며, 또한 어휘의 모든 속성들이 어휘의 행태를 통해 발현되는지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다. 어휘의미의 이러한 특성은 언어학 이론과 언어사전 구축에 있어 많은 문제점들을 야기한다.

어휘의미의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어휘의미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전통적으로 어휘의미는 어휘가 지시하는 대상과 동일시되어, 대상을 한정하

* 이 논문은 1998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자유공모과제로 선정되어 2년간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되었다.

** 이 논문을 읽고 귀중한 의견을 내주신 익명의 두 심사자에게 감사사를 드리며, 그들의 의견이 이 논문의 수정에 많은 도움을 주었음을 밝힌다.

는 속성들로 구성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반면, 지시대상과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부정하고, 화자들이 대상에 대해 갖는 개념과의 관련성을 강조하는 논의들도 있었다. 이러한 분석에서는 어휘의미가 화자들 사이에 공유되는 고정적인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반면, 일부에서는 언어사용자들이 언어활동을 통해 끊임없이 어휘의미를 구성해 나가는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¹. 또한, 문맥에 따른 다양한 의미변이 양상을 고려하여, 어휘의미를 어휘가 사용되는 문맥의 전체, 즉 어휘의 용법으로 대체하기도 한다².

어휘의미는 언어사전 구축의 관점에서도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는 기존 언어사전의 표제어 정의 기술의 문제점을 통해 쉽게 확인된다. 예를 들어, 많은 언어사전의 경우, 흔히 표제어 항목을 다의어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그런데, 사전에 따라 표제어의 의미가 다르게 분할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사전에서는 하나로 통합된 의미가 다른 사전에서는 몇 개로 분할되어 기술되는가 하면, 사전에 따라 일부 의미는 누락되기도 한다. 한편, 어휘의미의 설명에 있어서도 사전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 많은 예들이 발견되어 동일한 의미에 대한 정의가 서로 다른 내용을 표상하기도 한다³.

우리는 어휘의미의 분석과 기술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 작업은 어휘의미의 내용을 한정하고 표상하는 문제와 직접 연결된다. 본고에서는 언어사전 구축의 관점에서 어휘의미의 문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언어사전은 어휘의미가 제기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토대로 구축되어야 한다. 즉, 이론적 타당성과 실용적 효용성을 갖는 동시에 어휘의미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표상할 수 있는 방법론이 마련되어야 한다. I. A. Mel'čuk과 그의 동료들이 개발한 설명결합사전(*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이하 DEC로 약칭함)이 지향하는 바는 한 언어를 구성하는 전체 어휘부에 대한 총체적인 지식을 일관성있게 기술하는 것이다. DEC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휘지식을 추출하고, 이를 표상하기 위한 구체적인 원칙, 방법, 기준들을 제시한다. 본고에서는 우선 DEC가 제시하는 방법론을 통해서 일반적인 어휘의미의 기술과 표상 방법을 살펴볼 것이며 나아가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DEC 자체의 어휘의미 기술과 표상 방법을 검토해 볼 것이다.

1. 이들은 어휘의미의 기술과 표상의 관점에서도 각각 다른 입장을 보인다. 의미의 고정성을 인정하면 의미기술과 표상을 위한 고정된 의미성분의 추출이 가능하다. 반면, 어휘의미의 구성적 특성을 제기하는 이론들에서는 이와 같은 작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cf. Kleiber 1999, pp. 30-52.

2. cf. Cruse 2000b, 5장.

3. Ravin & Leacock 2000, p. 2와 Fillmore & Atkins 2000, pp. 91-99를 참고.

2. 언어사전과 어휘의미 기술

언어사전의 체계적인 어휘 기술을 위해서는 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정보들을 추출, 구성, 표상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의 연구 대상인 DEC의 어휘의미 기술 방법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해, 검토하기 위해, 어휘의미의 기술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문제점, 즉 의미의 한정, 다의어의 의미구분, 표상 등의 문제들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2.1. 어휘의미의 한정

어휘의미 기술에 있어서 일차적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이 개별 어휘가 표현하는 의미의 한정 문제이다. 여러 논의들이 어휘가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변이를 보인다는 점을 들어 의미의 한정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즉, 어휘의미는 고정적인 특정 내용을 갖지 않으며, 따라서 변이 관계에 있는 여러 의미들을 이산적으로 구분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상 언어활동에서 언어사용자들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어휘들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한다. 이러한 사실은 언어사용 이전에 언어사용자들이 의미에 대해 항구적인 지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어휘에 대한 선지식을 전제하지 않고는 인간의 의사소통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무한한 표현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개별 어휘는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다.

의미의 한정성을 부정하면 어휘의미의 분석이라는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별 어휘가 일정한 의미를 갖는다고 가정하면 구체적인 어휘의미를 밝히고 그 결과를 통해 어휘의미를 설명하고자 하는 시도가 가능하다. 따라서, 사전의 의미기술은 후자의 관점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후자의 논의에서 중요하게 제기되는 것이 어휘의미의 정의 문제이다.

어휘의미를 어휘가 지시하는 대상과 동일한 것으로 분석하는 이론이 존재한다. 즉, 어휘의미는 대상이 갖는 속성들의 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정의는 일견 관찰 가능한 대상을 지칭하는 눈, 물, 개, 나무 등과 같은 어휘들에게는 용이하게 적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어휘들이 지시하는 대상들은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개별 대상이 갖는 속성들 중에서 그 자신을 다른 대상과 차별화해 주는 특징적, 원형적 속성들을 추출해내는 것이 해당 어휘의미를 효율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필요하다.

한편, 이와 같은 방법은 목적, 관념, 사람, 미운 등과 같이 추상적 대상을 지시하는 어휘들에게는 잘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대상들은 관찰 불가능하고, 사회·문화적 요인들에 의해 그 특성들이 결정되고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이 대상들의 속성은 언어사용자가 세계를 인지하는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

다. 언어적 관점에서 보면 언어사용자가 어휘를 사용하여 대상을 지시함으로써 대상에 속성들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⁴. 두 가지 입장은 대체로 지시적 어휘의미와 개념적 어휘의미에 대응될 수 있으며, 이들은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DEC에서도 어휘의 성격에 따라 두 가지의 방법을 절충하여 어휘의미를 정의하고 있다.

지시적 대상과 개념적 대상이 갖는 속성들은 인간의 세계에 대한 지식에 해당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상에 대한 지식과 어휘의미 사이의 구별 문제가 제기된다. 즉, 어휘의미가 전체 지식과 동일한지, 아니면 지식의 부분집합인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일부의 논의들은 전체 지식과 어휘의미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구별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다른 논의들은 언어적 관여성을 갖는 지식들만이 어휘의미라고 분석하기도 한다. 전자의 주장을 지지하는 대표적인 입장을 근래의 인지미론이 보여주고 있는 반면, 언어사전인 DEC는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이 문제는 필연적으로 어휘의미의 정의에 필요한 성분들을 추출하는 방법과 연관이 된다.

2.2. 다의어 분할

하나의 어휘는 다양한 문장에서 사용되고, 다른 어휘들과 결합하여 여러 의미를 표현한다. 그 양상은 “그는 누나가 사온 *사과*를 깎아 먹었다”와 “그 가게는 *사과*를 판다”에서의 *사과*와 같이 개체와 부류를 지칭하는 규칙적인 것에서부터 “그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았다”에서의 *사과*와 같이 의미적 상관성이 전혀 없는 형태만 동일한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여준다. 전자의 변이 양상은 언어보편적인 현상으로 규칙화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하나의 의미로의 통합이 가능하다. 반면, 후자는 형태만이 동일하고 의미적 관계가 없는 동형어(homonyme)로 두 의미는 별개의 어휘로 분할된다.

대부분의 의미변이는 두 유형 사이에 놓이며 규칙성과 보편성에 있어 단계적 특성을 보인다. 실제로 의미변이는 문맥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이며 규칙성을 포착하기가 매우 어렵다. 변이의 양상으로는 “*찌개*는 이쪽으로 모여주세요”와 같이 음식명이 ‘음식을 주문한 사람’을 지칭하는 발화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 화용적인 것이 있는가 하면 “인도에서는 소를 먹지 않는다”와 같이 동물명이 ‘동물의 고기’를 표현하는 언어 내적인 것 등이 있다.

변이의 예로는 “그는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와 같은 은유적 것과 “도둑이 문을 따고 들어왔다”와 같은 환유적 것이 있다⁵.

4. Kleiber 1999, pp. 30-52 참고.

5. 의미변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Cruse 2000b, pp. 105-123을 참고.

일부의 의미변이는 매우 광범위한 어휘에 걸쳐 나타나는 규칙성을 보인다.

(1) 동물 ↔ 동물의 고기	소, 돼지, 닭, 오리 ...
과일 ↔ 과일나무	사과, 감, 배, 옥수수 ...
나무 ↔ 목재	소나무, 대나무, 감나무 ...
꽃 ↔ 꽃나무	장미, 무궁화, 매화 ...

위의 예에서는 대부분의 어휘가 본래 지시하는 대상과는 다른 대상을 지시하므로 다의어로 의미를 구분할 수 있다.

전술한 것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는 의미변이도 발견된다. 예를 들어, 책과 같은 명사는 문맥에 따라 ‘추상적인 책의 내용[TEXT]’, ‘구체적 대상으로서의 책[TOME]’ 등을 지칭하거나 또는 두 양상을 동시에 지칭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변이는 음반, 인쇄물 등을 지시하는 어휘들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은행, 기관, 국가 등의 어휘들도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전술한 유형의 변이는 동일한 대상의 여러 하위양상들을 지시하므로 흔히 국면(facet)이라고 부른다⁶.

이러한 변이 양상의 복잡성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이들을 다의어로 분석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의 의미로 통합할 것인가가 문제의 핵심이다. 변이관계에 있는 의미들은 그 관련성의 정도에 따라 하나의 의미로 통합되거나 분할된다. 다시 말해, 개별 어휘에 따라 다양한 처리 방식이 요구된다. DEC는 언어적 기준을 적용하여, 어휘의 형태·통사적 차이 또는 어휘의미 관계의 차이를 초래하며 정의를 통해 명시적으로 상관성·유사성을 표상할 수 있는 변이만을 다의어로 분할하고 그렇지 않은 변이는 하나의 어휘로 통합하고 있다.

2.3. 어휘의미의 표상

어휘의미의 표상이란 의미성분들을 추출하고 이들을 통합하여 전체 어휘의미를 구축하는 것이다. 의미성분 추출 작업은 후보 성분들이 어휘의미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것으로 성분들 사이의 내적 관계를 제시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한다.

완전한 어휘의미를 표상하기 위해서는 추출된 성분들을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성분들이 서로 맺고 있는 관계와 그 밀접성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각 성분들의 전체 어휘의미 내에서의 위치가 결정된다.

의미 표상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메타언어를 사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 어휘의미는 자연언어가 아닌 다른 약호들로 구성된 메타언어로 표상된다. 이러한 메타언어는 이론 종속적 성격을 갖게 되기 때문에, 어휘의미

6. 국면에 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Cruse 2000a, 2000b, pp. 105-123을 참고.

의 일부만을 표상하며 그 이외의 다양한 속성들을 완전하게 나타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⁷.

메타언어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도구이므로 자연언어와는 달리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이해를 위해서는 개별 메타언어가 표현하는 내용을 자연언어의 어휘를 통해 재설명해야 한다. 실제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잘 모르는 단어를 발견했을 때 보다 쉬운 자연언어의 표현을 통해 이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제시하려고 한다. 이는 자연언어가 인간의 사고 및 인지의 틀을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자연언어를 이용하여 어휘의미를 설명하는 것을 환언적 정의라고 한다. 환언적 정의는 자연언어의 어휘와 규칙을 사용하여 어휘의미의 내용을 자세히 풀어 설명하기 때문에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이 방식은 어휘의미를 구체적이고 총체적으로 정밀하게 제시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자연언어에 의한 어휘의미 기술도 문제점을 갖고 있다. 이는 자연언어의 어휘들이 갖는 중의성(ambiguité)에 기인하는 것으로, 자연언어에 의한 정의가 여러 의미를 표현하게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정의는 사용되는 어휘 수와 각 어휘의 의미 수를 곱한 만큼의 중의성이 가능하다. 또한 통사적 중의성도 고려해야 한다.

한편, 자연언어에는 여러 동의적 표현들이 존재하며 의미기술을 위하여 이 표현들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일관된 의미표상을 위해서는 동일 의미성분은 항상 일정한 어휘로 기술되는 것이 좋다. DEC의 어휘의미 표상에는 자연언어를 이용하는 환언적 정의와 어휘함수라는 메타언어적 정의가 함께 사용된다. 그런데, DEC가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은 전자의 방식이다.

3. DEC의 어휘의미 기술

2에서 어휘의미의 기술과 표상에 관련된 주요 쟁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다음으로는 이 문제들과 관련하여 DEC가 제시하고 있는 방법론을 검토해 보겠다. 우선 DEC가 표상하는 어휘의미의 성격과 역할을 살펴볼 것이며, 이어서 어휘의미의 추출과 표상의 문제도 다룰 것이다⁸.

7. Jackendoff의 개념의미론에서는 어휘의미를 함수-논항(function-argument)이라는 메타언어를 사용하여 표상한다. 예를 들어, *walk, run, jump, crawl*은 THING, PATH, GOAL 논항들이 GO 함수와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제시된다. 그러나, 이 어휘들을 구별해주는 사형의 양태에 관한 정보들은 표상되지 않는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Goddard 1998, pp. 66-68을 참고.

8. 본고의 3과 4에서 다루어지는 DEC의 정의 기술과 표상을 위한 원칙과 기준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DEC I, II, III의 이론적 논의 부분, Mel'čuk, Clas & Polguere 1995, 3장과 이병근·박진호 2000을 참고.

DEC는 의미-텍스트 대응모형(Modèle sens-texte, 이하 MST로 약칭함)의 의미부(composante sémantique)에 통합되는 이론적 언어사전이다⁹. MST에서는 모든 발화체가 의미, 통사, 형태, 음성의 국면을 기술하는 독립적인 7개 단계¹⁰로 표상된다. 각 표상은 의미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있으며 인접 단계의 표상들에 대응한다. 표상간의 대응은 표상을 구성하는 성분들 사이의 대응으로 치환되고, 성분들의 대응은 언어가 제공하는 규칙들을 통해 수행된다. 따라서 언어는 7단계의 표상과 그 성분들을 연결하는 대응규칙의 집합으로 분석된다.

DEC를 통합하는 의미부는 의미표상(représentation sémantique)과 심층통사표상(représentation syntaxique profonde)에 대응한다. 의미표상은 발화체가 전달하는 의미내용과 의미성분들의 관계를 의미망의 형태로 제시한다. 의미표상의 성분들은 개별 언어의 어휘로 실현되어 발화체의 심층통사표상을 형성한다. 의미부는 의미성분과 어휘간의 대응, 선택된 어휘에 따른 심층의 통사구조와 이에 기반한 문장구성 등에 관여하는 규칙들로 구성된다. 따라서 의미부의 규칙들은 심층통사표상을 구성하는 어휘를 중심으로, 그 의미와 어휘·통사적인 행태에 관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어 언어사전의 표제어에 제시되는 정보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MST는 의미부와 언어사전의 유사성을 토대로 의미부의 규칙들을 총체적으로 표상하는 DEC를 구축한다.

3.1. DEC의 어휘의미

MST의 발화체는 하나 이상의 문장으로 표현될 수 있는 단위에 해당한다. 인간의 언어활동에 있어 문장은 무한하게 생성 가능하다. 한편, 여러 형태의 문장들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MST는 언어 산출(production)의 관점에서 하나의 의미가 여러 개의 발화체로 실현되는 국면에 주목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 규칙들을 고안하고자 한다. 따라서 MST의 의미표상은 다수의 발화체에 대응될 수 있으며 다수의 심층통사표상에 대응한다. 이 발화체들을 동의적 환언문(paraphrase synonymique)이라 부른다.

MST는 동의적 환언문들로부터 의미를 추출하고 의미표상을 구축한다. 의미표상은 동의적 환언문이 전달하는 상황 의미, 의미성분들의 구성과 조직에 따른 의미, 수사적 의미를 포함한다. 이 가운데 의미표상의 핵심은 상황 의미이다. 이 세 유형의 의미 양상은 분할되어 별도의 구조를 통해 표상된다.

심층통사표상에 사용되는 어휘는 세 의미구조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된

9. MST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홍계성·박동호 2000을 참고.

10. MST의 7단계 표상은 의미표상, 심층통사표상, 표층통사표상, 심층형태표상, 표층형태표상, 심층음운표상, 표층음운표상이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홍계성·박동호 2000을 참고.

다. 특히, 어휘 선택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이 상황 의미이다. 이는 상황 의미가 발화체로 표현되는 상황이나 사태의 구체적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즉, 상황 의미의 추가와 삭제는 정보적 측면에서 의미의 변화를 초래하고 어휘 선택에 직접 영향을 주게 된다.

다른 유형의 의미들은 상황 의미에 대한 관련성에 따라 사전정의에 통합되거나 별개의 의미 정보로 분할된다. 예를 들어, 수사적 의미인 화계(registre)는 어휘 선택에 관여하지만, 상황 의미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즉, 화계는 어휘 의미의 핵심적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며 DEC는 이를 별도의 구획에 표상한다.

‘구정보-신정보’, ‘전제-단언’ 등과 같은 성분의 구성과 조직에 대한 의미들도 상황 의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이 의미는 상황 의미의 성분들이 전달되는 순서를 결정하며 이는 어휘의미를 구성하는 성분들의 위상과 관련된다. 즉, 이 의미는 성분들을 관계지어 주므로 전체 어휘의미에 통합되어 표상된다.

상황 의미는 문장의 구성과 어휘의 행태를 결정짓는 핵심적 정보다. 그러나 상황 의미만으로는 어휘의미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다. 비유적 용법을 보이는 일부의 어휘들이 그 대표적 예인데, 이들은 비유적 용법을 설명하는 의미성분들을 포함한다¹¹. 이 성분들은 상황 의미를 구성하지 않는데, 이러한 사실은 상반된 의미를 갖는 어휘를 발화체에 추가해도 의미적인 모순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예를 들어, 명사 VENT은 「le vent tourne<change>」(추세, 사태가 바뀌다)와 같은 숙어표현에서는 ‘changement d’orientation(방향 전환)’의 의미 성분을 갖지만, *le vent constant*(일정한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같은 표현이 자연스럽게 사용된다¹². 상황의미를 구성하지 않는 이 성분들은 의미부 규칙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DEC에서는 비유적 용법과의 의미적 관련성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전적 공시의미(connotation lexicographique)라는 별도의 하위 의미정보 표상구획에 이 성분들을 기술한다¹³.

한편, 대부분의 의미성분들은 어휘에 직접 대응되고 이들은 DEC의 표제어와 이에 대한 사전정의를 통해 표상된다. 그러나, ‘속성의 높고 낮은 정도’와 같이 다른 의미성분에 종속된 일부의 의미는 지배 성분에 대응되는 어휘에 따라 다양한 어휘 형태로 실현된다.

11. DEC는 비유적 용법을 갖는 어휘들을 별개의 표제어로 등재하고, «의미가교 원칙(principe de pont sémantique)»에 따라 두 표제어 사이의 의미 관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병근 · 박진호 2000을 참고.
12. 이는 공시적 의미(connotation)를 판별하는 기준으로, «반대의미의 기준»이라 부른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Mel'çuk, Clas & Polguère 1995, pp. 111-117을 참고.
13. 사전적 공시의미는 사전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정보로 발화체의 의미를 구성하지도 않으며 표제어 어휘를 구별하는 의미성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사전적 공시의미를 논의에서 제외한다.

(2) 눈부신 발전	혁혁한 전과	격렬한 토론
치열한 경쟁	피나는 노력	굳은 약속
깊은 상처	깊은 슬픔	깊은 골짜기
높은 가능성	절대절명의 위기	새빨간 거짓말

위의 예의 형용사들은 모두 ‘속성의 높은 정도’를 표현하며 명사 어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실현된다. MST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의미부 규칙에 의해 명사 어휘가 선택된 후에 형용사 어휘가 선택되는 것이다. 따라서 형용사의 대응 규칙은 의미부에 포함되지 않고 심층통사표상에는 구체적 어휘 형태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심층통사표상은 형용사들이 실현될 수 있는 표지를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위에 예에서 형용사들은 모두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그 형태가 명사 어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수학의 함수와 성격이 유사하다. MST에서는 ‘f(X)=Y’의 함수 형식을 도입하여 이들의 대응관계를 일반화하여 표상한다.

(2') Magn(발전)=눈부신, 장족의 Magn(전과)=혁혁한, 빛나는 Magn(토론)=격렬한
 Magn(경쟁)=치열한 Magn(노력)=피나는 Magn(약속)=굳은
 ...

함수 Magn는 내용상으로 ‘속성의 높은 정도’을 표현하며 형식상으로는 명사 어휘와 형용사 어휘를 입력값과 함수값으로 갖는 이론적 도구다. 어휘 집합간의 대응관계를 표상한다는 점에서 이 도구를 MST에서는 어휘함수(fonction lexicale)라 부른다. MST에서는 어휘함수의 방법론을 확대, 적용하여 ‘동의’, ‘반의’, ‘개체-부류’, ‘원소-집합’, ‘형태적 파생’, ‘술어명사와 기능동사’, ‘논항의 전환관계’ 등과 같이 광범위한 어휘들에서 발견되는 의미관계들을 일반화된 규칙의 형태로 표상한다¹⁴.

어휘함수의 도입으로 의미성분들은 어휘 또는 어휘함수에 대응하고, 심층통사표상은 어휘와 어휘함수로 구성된다. 따라서 의미부 대응 규칙도 어휘와 어휘함수에 관한 규칙으로 분할되고, DEC의 어휘의미 기술에 반영된다. 의미성분의 내용은 어휘에 직접 대응되는 경우에는 사전정의 형식으로 직접 기술되고, 어휘함수에 대응되는 경우에는 어휘함수가 사용되어 표상된다. 본고에서는 어휘함수에 의한 정의가 일반화된 몇 가지의 어휘의미에 국한되며 그 의미 내용을 명시적으로 표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전자의 경우만을 검토하고자 한다¹⁵.

14. 어휘함수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이병근·박진호 2000와 Wanner (ed.) 1996 전체를 참고.
 15. 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어휘함수로 결정되는 어휘들이 DEC의 표제어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DEC가 의미부의 규칙들을 표상하기 때문에 DEC는 심층통사표상을 구성하는 어휘만으로

3.2. DEC의 다의어 분할

앞서 지적하였듯이 많은 어휘들은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를 표현한다. 이들은 먼저 의미적 상관성의 유무에 따라 동형어와 의미변이(variation sémantique)로 구분된다. 전혀 다른 의미를 표현하는 동형어들은 다른 표제어 항목으로 등재되어 별개의 규칙을 형성한다. 변이 관계에 있는 의미들도 MST의 관점에서 다른 의미표상을 구성하므로 이론적으로는 모두 다의어로 분류된다.

그러나, 의미적 상관성을 고려하여 두 의미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으며 통합된 의미를 각각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는 의미표상에 대입할 수 있다. 이 때, 의미표상, 특히 상황 의미에 변화가 없다면 두 의미는 하나의 어휘로 통합될 수 있지만, 의미의 추가나 삭제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면 별개의 어휘로 분할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판단은 내용적 측면의 기준이며, 의미변이가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점에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로 DEC는 의미변이가 나타나는 어휘를 두 개의 표제어로 분할할 수 있는지, 그리고 잠재적인 두 표제어가 하나로 통합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5개의 형식적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 기준은 하나의 문장이 두 개 이상의 해석을 가질 수 있는냐는 것이다.

(3) Jean regardait une fille avec un télescope

- a. une fille que Jean regardait avec un télescope(장이 망원경으로 쳐다보는 소녀)
- b. une fille avec un télescope que Jean regardait(장이 쳐다보는 망원경을 가진 소녀)

(4) Jean leur a proposé un voyage

- a. Jean leur a offert un voyage(장은 그들에게 여행 기회를 제공했다)
- b. Jean leur a suggéré de faire un voyage(장은 그들에게 함께 여행을 할 것을 제안했다)

위의 예문들은 모두 다중해석의 가능성을 보여주지만, 그 요인은 각각 다르다. 예문 (3)이 통사 구조적 중의성을 갖는 반면, 예문 (4)는 한 단어의 의미변이로 다중해석을 보이고 있다. 후자의 경우, 문장은 두 개의 의미표상을 갖는다. 전자의 경우, 표상은 동일한 의미성분으로 구성되고, 단지 성분들의 관계만이 달라지지만, 후자는 표상을 구성하는 성분들과 그 관계가 모두 달라지게 된다. 후자의

표상 차이는 다중해석을 야기하는 동사 PROPOSER(제공하다, 제안하다)가 다른 의미성분들로 구성되는 별개의 어휘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어휘는 잠정적으로 두 개의 대응규칙을 형성하게 되어, DEC는 이를 별도의 표제어로 분할하게 된다. 이를 «다중해석의 기준»이라 한다.

다중해석이 가능하며 그 원인이 한 단어에 의한 것일지라도 모든 경우에 있어 별도의 어휘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겠다.

한 어휘가 의미변이를 보이는 경우, 두 의미 사이의 차이는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일 수 있다. 이들은 DEC의 표제어 분할에 있어서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 이를 «부분적/전체적 의미차이의 기준»이라 하며, 전체적 차이를 보이는 두 의미는 별도의 표제어로 분할되고, 부분적 차이를 보이는 것들은 하나의 표제어로 통합된다.

예를 하나 살펴보자. VENDRE(팔다)의 경우 그 의미변이는 다음과 같이 실현된다.

- (5) a. Elle vend (des tapis+du poisson+des livres) aux (touristes+gens du quartier)
(그녀는 {관광객+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양탄자+생선+책}-을 판다)
- b. Elle vend (ses caresses+ses faveurs+ses charmes+son corps) aux (touristes+gens du quartier)
(그녀는 {관광객+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몸을 판다)

(5a)가 완전한 소유권의 이전을 나타내는 전형적인 상거래 행위를 표현하는 반면, (5b)는 일시적인 성적 소유권의 이전을 나타낸다.

- (5) a. VENDRE1 : ‘... transmettre les droits de possession permanente d’une marchandise Y pour ...’(상품Y의 영구적 소유권을 넘기다)
- b. VENDRE2 : ‘... transmettre les droits de possession temporaire sexuelle d’une personne impliquée pour ...’(한 인물의 한시적 성적 소유권을 넘기다)

VENDRE의 경우, 의미차이는 부분적인 것으로 전체 의미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부분적 의미차이는 (5b)를 (5a)와 비교할 때, 동사 제 2논항의 의미부류를 제외하고는 아무런 통사적 차이가 유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반면, ACCEPTER(받아들이다)의 의미차이는 통사적 관점에서 볼 때, 제 2논항의 차이에 의해 확인되며, 따라서 그 의미차이가 전체적임을 알 수 있다.

- (6) a. Jean a accepté son exil sans rechigner
(장은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유배를 받아들였다)
b. Jean a accepté d'être exilé sans rechigner
(장은 불평하지 않고 자신의 유배를 받아들였다)
c. *Jean a accepté son exil de ses parents sans rechigner
(장은 불평하지 않고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자신의 유배를 받아들였다)
- (7) a. Jean a accepté ce cadeau sans rechigner
(장은 싫은 기색을 하지 않고 이 선물을 받았다)
b. *Jean a accepté de recevoir ce cadeau sans rechigner
(장은 싫은 기색을 하지 않고 이 선물을 받는 것을 받았다)
c. Jean a accepté de ses parents ce cadeau sans rechigner
(장은 싫은 기색을 하지 않고 그의 부모님으로부터 이 선물을 받았다)

따라서, ACCEPTER의 두 용법은 분할되어 별도의 표제어로 등재되며, 이들 각각의 사전정의는 다음과 같다¹⁶.

- (6) ACCEPTER I.1a : 'Réagissant à la situation (liée à) Y qui existe ou peut exister, X ne s'oppose pas à l'existence de cette situation'
(존재하거나 존재할 수 있는 상황 Y에 대해서 X가 그 상황의 존재에 반대하지 않다)
- (7) ACCEPTER I.3 : 'Personne Z offrant Y à X, X accepte I.1a de prendre Y de Z'
(Z는 Y를 X에게 제공하는 사람이며, X가 Z로부터 Y를 취하는 것을 받아들이다)

«부분적/전체적 의미차이의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정도성이다. 왜냐하면, 정도성은 개별 어휘들에 따라 그 기준이 달라지며, 결정에 있어서 직관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즉, 이 기준은 별도의 형식적 기준을 통한 그 타당성 검증이 요구된다. 다음의 세 기준들은 단어의 행태에 근거하고 있어서 전술한 «다중해석의 기준»이나 «부분적/전체적 의미차이의 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보다 형식적인 판단 근거를 제공한다.

세 번째는 «양립 가능한 공기의 기준»¹⁷이다. 양립 가능한 공기 표현을 포함하

16. DEC II의 ACCPETER 항을 참고.

17. DEC에서는 이 원칙을 처음 제안한 학자의 이름을 따라 «Green-Appresjan 기준»이라고도 부른다.

는 문장의 생성 가능성에 따라 어휘 분할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양립 가능한 공기란 한 어휘의 두 의미가 문장 내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 기준을 PEINDRE(칠하다)와 ACCEPTER에 적용해 보면, 비문이 생성되는 액어법(zeugme)의 양상¹⁸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동사의 의미차이를 별개의 표제어로 분할하여 나타낼 수밖에 없다.

(8) a. *Jean a peint sa voiture en bleu et son plafond de scènes bibliques

(*장은 차를 파란 페인트로 그리고 천장을 종교 그림으로 칠했다)

b. ³J'accepte son exil et ce cadeau en souvenir

(²나는 그의 유배와 기념품 선물을 받는다)

반면, 아래의 예들에서는 의미차이가 양립 가능한 공기를 갖는 문장을 생성하고 있어 하나의 어휘로 통합되어, 두 의미는 이접(disjonction)의 형태로 기술된다.

(9) a. Tous mes beaux-fils étaient là -- le fils aimé de ma femme, ainsi que les maris de nos trois filles

(내 자식들-내 아내의 장남과 우리 세 딸의 남편들이 모두 거기에 있었다)¹⁹

b. Le liquide se refroidit un peu[=L'] et puis complètement[=L'']

(액체가 약간 그리고 완전히 식었다)²⁰

특히, 이 기준은 첫째 기준인 «다중해석 기준»을 통해 발견되는 잠재적 어휘소들의 다의성을 판별해 줄 수 있는 보완적 기준이다.

네 번째는 «차별적 공기의 기준»으로, ACCEPTER와 같이 구별 가능한 각 의미에 대해 별개의 형태, 통사, 어휘적 공기관계가 다르게 나타나면 다른 표제어로 분할하는 것이다.

마지막 기준은 «차별적 파생의 기준»으로 아래의 ELEVER(기르다)와 같이 잠재적 어휘의 의미들이 다른 파생양상을 보이면 각각의 어휘로 분할하는 것이다.

18. Cruse는 이를 두 의미의 대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자세한 논의는 Cruse 2000a, 2000b pp. 105-123을 참고.

19. 불어의 *beau-fils*는 친자가 아닌 아들(예를 들어 재혼한 처와 전 남편 사이의 아들)과 사위를 모두 지칭할 수 있다.

20. 불어의 *se refroidir*는 약간 식는 과정과 완전히 식어버리는 과정을 모두 지칭할 수 있다.

- (10) a. Toute sa vie, Jeanne a élevé des enfants(잔은 평생, 아이들을 교육했다)
 b. Jeanne s'occupe (d'éducation+de formation) des enfants(잔은 아이들의 교육을 맡고 있다)
 c. Jeanne est une jardinière d'enfants(잔은 아이들의 교육담당자이다)
- (10') a. Toute sa vie, Jeanne a élevé des cochons(잔은 평생, 돼지를 사육했다)
 b. Jeanne s'occupe d'élevage des cochons(잔은 돼지 사육일을 한다)
 c. Jeanne est éleveuse de cochons(잔은 돼지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10)에서는 ELEVER, EDUCATION/FORMATION, JARDINIER D'ENFANTS이, (10')에서는 ELEVER, ELEVAGE, ELEVEUR가 각각 다른 유형의 파생양상을 보이므로 이 동사는 두 개의 표제어로 분할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3.3. DEC에서의 의미성분의 추출

일반적으로 구체적인 지시물을 갖는 어휘들의 지시물에 대한 속성 정보는 사전 정의에 포함되어 있다. 이 중 지시물의 구성 속성은 지시물을 한정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필수적인 의미성분으로 정의에 포함된다. 이 속성들이 포함되지 않은 사전정의는 지나치게 모호한 의미내용을 표상하게 되어 전혀 다른 대상을 지시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얼음*의 사전정의에 '고체성'이라는 속성 정보가 없다면, 이 어휘는 매우 차가운 액체를 지시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속성들이 지시대상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일부는 지시대상의 내재적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성적인 특성을 갖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이 사전정의에 포함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언어적 기준으로 «언어적 유효성의 기준»이 제안된다.

이 기준에 따라서 비구성적 속성을 표현하는 의미성분이라도 해당 어휘의 파생어 또는 속어의 의미에 사용되는 것은 사전정의에 포함된다. 이 기준은 '형태와 의미가 관련된 어휘들의 사전정의는 그 의미적 관계를 명시적으로 표상한다'는 DEC의 «의미가교» 원칙이 확장된 것이다.

예를 들어, NEIGE(눈), SUCRE(설탕), RIZ(쌀), SEL(소금) 등의 어휘들이 지시하는 대상은 모두 'blanc(백색)'의 속성을 갖는다. 이 단어들 가운데, NEIGE와 SEL의 경우에는 각각 (*blanc*) *comme neige*(눈처럼 (하얀)), *poivre et sel*(희끗희끗한)과 같은 속어소를 통해 이 속성과 관련된 의미성분들이 발현되지만, SUCRE, RIZ에서는 이와 같은 속어소가 발견되지 않는다. 즉, 전자의 어휘들에

대한 사전정의는 'blanc'을 포함하지만, 후자 어휘들의 정의는 이를 포함하지 않는다.

한편, NEIGE에 대한 'substance blanche froide...(차갑고 하얀 물질)'라는 정의의 타당성은 다의어 관계에 있는 NEIGE II 'cocaïne en poudre(가루로 된 코카인)'와의 의미적 관계를 명시해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의해 재확인된다. 그러나 이 기준은 관찰 가능한 구체적 지시체를 갖는 어휘들에만 적용될 수 있다. 한편, 다음의 기준들은 보다 일반적 의미성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광범위한 어휘들에 적용된다.

의미성분 추출을 위한 두 번째 기준이 «질적 수식어와의 공기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질적 수식어와 공기하는 어휘의 경우, 그 사전정의는 수식어의 의미에 영향을 받는 의미성분을 포함해야 한다. 아래의 예에서와 같이 APPLAUDISSEMENT(박수)은 질적인 강도를 표현하는 다양한 형용사 및 명사와 결합한다.

- (11) a. applaudissements (nourris+frénétiques+clairsemés)((우렁찬+열렬한+드문드문한) 박수)
- b. (salve+tonnerre+tempête) d'applaudissements(우레와 같은 박수갈채)

위의 예문들에서 형용사와 명사는 '세기' 또는 '빈도'에 관한 질적 특성을 표현하고 있으며 따라서 APPLAUDISSEMENT의 사전정의는 수식을 받는 의미성분을 포함하여 'battements de mains ... dont la force(세기) et/ou la fréquence(빈도) est ...'와 같이 표상된다.

다음은 «양화사와의 공기 기준»으로, 양화사나 수 표현과 결합이 가능하면 해당 어휘의 사전정의는 이를 명시적으로 표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OIGNON(양파), CAROTTE(당근), CHOU(양배추)는 모두 채소를 나타내는 어휘들이지만, 'unité de légumes U...(양파 한 개 또는 배추 한 포기 등과 같이 셀 수 있는 개체로서의 채소)', 'matière comestible de U...(물질명사로서의 채소)', '(ensemble des) plante(s) destinée(s) à produire U...(식물로서의 채소: 잎, 고갱이, 뿌리 등을 포함한 배추 전체)'의 의미를 표현하는 문맥들에서는 다른 행태를 보여준다.

- (12) a. manger (de l'oignon+des oignons+*de la carotte+des carottes+du chou+des choux), c'est bon pour la santé
 ((양파+당근+양배추)-를 먹는 것, 그것은 건강에 좋다)
- b. J'aime bien (l'oignon+?les oignons+?la carotte+les carottes+le chou+?les choux)
 (나는 (양파+당근+양배추)-를 매우 좋아한다)

c. Dans mon jardin, (l'oignon+les oignons+la carotte+les carottes+le chou+les choux) pousse(nt) bien.

(나의 정원에서는 (양파+당근+양배추)가 잘 자란다)

전술한 문맥에서 모든 채소명사의 행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본 후, 각 문맥에서 발현되는 의미에 대한 복수화 가능성 등을 명시적으로 기술해야 한다. 한편, «양화사와의 공기 기준»은 위의 예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다의어 어휘 분할의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각 어휘의 사전정의를 구성하는 «유개념 성분»²¹의 선택에 관여하고 있다²².

네 번째 기준은 «부정과의 공기 기준»으로, 사전정의를 부정표현의 영향을 받는 성분과 그렇지 않는 성분을 명시적으로 표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흔히 VEUVE(과부)는 ‘une femme en âge d’être mariée qui a perdu son mari(남편이 죽은 결혼 연령의 여성)’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문은 *Jeanne n'est pas une femme en âge d'être mariée*(잔은 결혼 연령의 여성이 아니다)와 동일한 의미를 전달하지는 않는다.

(13) *Jeanne n'est pas veuve*(잔은 과부가 아니다)

다시 말해, *Jeanne*는 언제나 결혼 연령의 여성이며, 실제로 부정 표현의 영향을 받는 의미성분은 ‘avoir perdu son mari(남편을 잃다)’이다. 따라서 ‘femme en âge d’être mariée(결혼 연령의 여성)’는 부정 표현의 영향을 받지 않는 불변의 속성을 나타내며 이를 반영한 의미정의는 ‘X, qui est une femme en âge d’être mariée, a perdu son mari(결혼 연령의 남편이 죽은 여성)’와 같이 기술된다.

3.4. DEC의 사전정의 구성

DEC 사전정의는 위계적 의미성분들의 통합성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DEC에서는 개별 의미성분들이 그 지위와 특성에 따라 분류되어 있으며, 이들이 사전정의에 통합되는 방식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3.3에서 제시한 기준들에 의해 추출되는 대부분의 의미성분들은 «보통 성분»에 해당한다. 이들은 다음에 제시되는 «유개념 성분»을 중심으로 배열되어, 어휘의

21. 본고의 3.4.를 참고.

22. 관사가 존재하지 않고, 수량표현이 분류사에 의거하는 한국어 구상명사의 경우, 의미성분을 구분해 내기 위해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의미와 통사적 속성을 한정한다. 예를 들어, PAYER I.2a(지불하다)(*payer ses dettes*(빚), *les taxes*(세금), *l'échéance*(어음), *le loyer*(집세))는 대체로 's'acquitter d'une obligation financière Y(재정적 의무 Y를 이행하다)'로 정의된다. 그러나, 'obligation(의무)' 성분이 갖는 3개의 의미적 논항(X a une obligation Y envers Z(X가 Z에 대해 Y-라는 의무감을 갖는다))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사전정의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정의는 동사와 그 논항과의 공기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

(14) X paie Y à Z = 'X s'acquitte d'une obligation financière Y que X a envers Z ...'

(X가 Z에게 지고 있는 재정적 의무 Y를 이행하다)

(15) a. Jean a payé ses dettes à ses créanciers(장은 채무자에게 빚을 갚았다)

b. Jean paie le loyer à son propriétaire toujours à temps

(장은 집주인에게 항상 기일을 지켜 집세를 낸다)

또한 이 성분들은 3.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질적 수식어 또는 부정표현의 영향을 받으며 구체적인 지시체를 갖는 어휘들의 경우, 지시체의 내재적 속성을 표현한다.

«보통 성분» 중에서 어휘 의미가 포함되는 부류를 지칭하는 성분을 특히 «유개념 성분»이라 한다. 이 성분은 의미적 위계관계 속에서 상위 의미를 표현한다. 반면, 다른 성분들은 상위 의미를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한다. 즉, «유개념 성분»은 사전정의를 핵심 성분이며 다른 성분들은 이 성분과 맺는 관계에 따라서 배열된다. 또한 의미적 위계상의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행태의 차이를 고려할 때, «유개념 성분»으로는 피정의항의 어휘가 갖는 다양한 공기관계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어휘가 선택되어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성분은 양화사와의 결합 및 복수화 가능성 등에 관련된 어휘적 행태를 결정한다.

«보통 성분»과 «유개념 성분»은 모든 문맥에서 어휘가 전달하는 의미에 포함되는 성분들이다. 반면 일부의 성분들은 문맥에 따라 삭제될 수 있다. 이들은 삭제 문맥 조건에 따라 «약한 성분»과 «수의적 성분»으로 구분된다. 전자가 특수한 문맥 조건에 의해 삭제되는 ETUDIANT(대학생)의 'sexe masculin(남성)'과 같은 성분들이라면 후자는 반드시 실현되지는 않지만 모순되는 문맥에서 쉽게 중화되는 PROFESSEUR²³(교수)의 '(personne)... employée par un établissement d'enseignement(교육기관에 고용된...[사람])'과 같은 성분들이다. DEC는 괄호를

23. 불어의 *professeur*는 대학교수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교사까지 지칭한다.

사용하여 이들의 삭제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표상하는 한편, 이들이 삭제되는 문맥 조건을 추가하여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부정표현 및 의문문과 관련하여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 «전제 부분»이 있다.

- (16) a. Jean a aidé Marie à laver la vaisselle(장은 마리가 설거지하는 것을 도왔다)
 b. Jean n'a pas aidé Marie à laver la vaisselle(장은 마리가 설거지하는 것을 돕지 않았다)

위의 예문에서 AIDER(돕다)를 부정해도 *Marie lavait la vaisselle*(마리가 설거지를 했다)의 의미는 전제된다. 이와 같은 성분들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앞의 «보통 성분»들과는 분리되어 표상되어야 한다. DEC에서는 «전제 부분»이 불어의 경우 분사절로 표상되어 «유개념 성분»으로 구성되는 사전정의의 핵심적 부분과 명시적으로 구분된다.

전제적 성격을 보이는 성분들 가운데는 특정 논항의 의미 속성을 표현하는 것들이 있다. 이러한 «논항의 제약 성분»은 다른 성분들과 아무런 관계를 맺고 있지 않아서 이를 부정하거나 의문시할 수 없다. 이 성분들은 불어의 경우, 논항을 수식하는 관계절이나 분사절의 형태로 표상된다. 특히, 이들은 술어에 포함되는 논항의 속성 제약에 관한 정보들을 표상하고 있어서 가능한 논항들을 예측하게 한다.

예를 들어, PAYER(지불하다)(*X paie Y en Z à W pour U*(X가 W에게 U에 대해서 Z로 Y를 지불하다))에서 Y 논항에 부여된 'qui est une somme d'argent(일정 액수의 돈)'의 의미적 제약을 가지고 공기가 불가능한 논항들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 (17) J'ai payé pour ce chien *cinq bouteilles d'eau de vie
 (나는 이 개에 대해서 다섯 병의 화주를 지불했다)

따라서, DEC의 사전정의에는 «유개념 성분»을 중심으로 «보통 성분», «약한 성분», «수의적 성분»이 배열되어 있으며, 추가적으로 «논항의 제약 성분»과 «전제 부분»이 통합된다. «논항의 제약 성분»과 «전제 부분»과 같은 특수한 위치를 차지하는 성분들과는 달리, «보통 성분», «약한 성분», «수의적 성분»은 «유개념 성분»과 맺는 관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진다. 따라서 사전 정의를 위한 성분의 배열은 «유개념 성분»과 관련하여 각 성분들이 맺는 의미적 관계와 관계의 필수성 등을 고려하여 행해져야 한다.

예를 들어, DOIGT(손가락)의 사전정의는 ‘allonge(긴)’, ‘articule(관절이 있는)’, ‘mobile(움직이는)’의 세 의미성분을 포함한다. 이들은 모두 지시체의 속성에 관한 정보들이지만 «유개념 성분»과의 의미적 긴밀성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우선 ‘allonge’와 관련하여 우리는 *Il avait des doigts si courts qu’il avait du mal à tenir la pomme*(그는 손가락이 짧아서 사과를 잘 잡지 못했다)와 같이 반대 경우를 쉽게 상상할 수 있다. 한편, ‘articule’ 성분은 DOIGT가 비유적인 의미로 확장되어 사용될 때 그 정의 속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반면, ‘mobile’은 ‘allonge’, ‘articule’와 비교해 볼 때, «유개념 성분»과 가장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관찰된다. 따라서 DOIGT의 정의에서 각 성분은 ‘partie(부분) mobile articulée allongée’와 같은 순서로 배열된다. 이와 같이, 언어적인 예들을 통해 «유개념 성분»과의 의미적 긴밀성을 판단하여 배열하는 것을 «의미적 관여성에 의한 배열 규칙»이라 한다.

4. DEC의 사전정의 표상

4.1. 사전정의의 형식

DEC 항목을 구성하는 어휘부 대응규칙은 어휘와 의미성분 간의 내용적 동일성에 근거한다. 따라서 두 항목은 아래와 같이 형식화될 수 있다.

$$(18) A = 'B'$$

A는 피정의항으로 표제어의 어휘를 나타내며, ‘B’는 정의항으로 표제어에 대응하는 어휘의미에 해당한다. 어휘의미는 MST의 의미표상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의미표상은 망상 구조로 표상된다. 따라서 DEC의 사전정의는 이론적으로는 망상구조의 표상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망상구조를 이용한 정의 표상을 인쇄 사전에 구현하기는 용이하지 않으며, 더욱이 일반 사전 이용자들이 이 구조를 이해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언어사용자들은 망상구조를 있는 그대로가 아닌 언어의 문장 형식으로 치환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이런 난점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DEC는 이론적 망상구조 표상과 더불어 언어의 문장 형식을 이용한 사전정의를 도입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언어를 이용하는 사전정의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4.2. 피정의항의 형식

DEC에 표상되는 의미부는 의미표상과 심층통사표상에 대응한다. 이 과정에 관계되는 어휘 선택, 통사구조 결정, 문장화 등에 관한 규칙들은 DEC에 명시적으

로 표상된다. 특히, 통사구조에 관한 정보는 심층통사표상과 발화체의 통사구조를 결정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통사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행위, 사건, 상태 등의 술어적 의미를 갖는 어휘들이다. 술어 어휘들은 그 의미 속에 항상 논항을 포함하고, 이들은 통사논항으로 실현되어 문장의 구조를 결정한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술어의 의미와 이에 포함된 논항 성분들은 발화체의 의미표상과 심층통사표상의 구성에 직접적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DEC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술어 어휘 항목에 의미적 논항과 통사적 논항에 관한 정보를 명시적으로 표상하고 있다.

논항 기술에 있어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개별 술어 어휘에 대한 의미 논항의 수, 통사적 실현, 의미적 특성 등을 한정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술어들은 의미적 특성에 따라 1-6개의 논항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각각의 술어에 대해 논항의 수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아래의 예는 VENDRE(팔다), LOUER(세놓다), DONNER(주다)의 논항의 수가 세 동사들간의 의미적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결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19) a. VENDRE : X vend Y à Z pour la somme W(X가 Z에게 W의 액수로 Y를 팔다)
 b. LOUER : X loue Y à Z pour la somme W pendant la période T
 (X가 Z에게 T 기간 동안에 W의 액수로 Y를 세놓다)
 c. donner : X donne Y à Z(X가 Z에게 Y를 주다)

논항의 수가 결정된 후에는 각 논항의 의미적 특성과 이 논항이 통사 논항으로 실현되는 양상을 명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논항의 의미특성에 관한 정보는 정의항에 기술되고, 의미적 논항의 통사적 실현에 관한 정보는 통사결합구획에 표상된다. 이와 더불어 사전정의의 피정의항에도 표제어에 대한 논항의 수 정보가 표상된다.

한편, 논항은 술어의 의미에 있어 일종의 가변적인 성분으로 실제 발화체에서도 다양한 개체들을 지시하며 여러 형태로 나타난다. DEC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논항을 X, Y, Z, W와 같은 중립적인 기호를 사용하여 표상한다. 따라서 DEC의 피정의항은 정의항에 기술된 논항과 동일한 수의 논항 정보가 통합된 형태로 기술된다. 이를 피정의항의 «명제형식의 규칙»이라 한다.

- (20) a. VENDRE : Jean a vendu son ordinateur à Pierre pour 10,000 francs
 (장이 피에르에게 만 프랑을 받고 컴퓨터를 팔았다)
 b. X vend Y à Z pour W

4.3. 정의항의 형식

어휘의미의 내용을 표상하는 정의항은 표제어 어휘에 대응되는 내용만을 표상한다. 따라서 정의항은 표제어 어휘보다 의미적으로 단순한 어휘들로 구성된다. 이를 지칭하여 «의미분해의 규칙»이라 한다. 이 규칙은 사전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순환정의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다. 이러한 정의항에 대한 제약은 MST에서 하나의 의미표상이 여러 개의 심층통사표상에 대응되는 관계를 포착, 가능하게 한다. 즉, 심층통사표상의 다양성은 의미표상으로부터 선택되는 어휘의 다양성과 선택된 어휘 변형 등에 관한 환언규칙에 기인한다. 이러한 다양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의미표상을 구성하는 어휘의미가 대응되는 어휘보다 의미적으로 단순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DEC 정의항의 어휘의미의 단순성은 표제어 어휘와 정의항 어휘간의 의미적 포함관계에 의해 규정된다. 이런 점에서 ‘추상/구체’, ‘일반/특수’, 사용빈도와 언어습득, 보편성 등과 관련되는 어휘의 심리적 단순성과는 구분된다.

예를 들어, PROFESSEUR(교수)는 PROFESSION(직업)보다 심리적으로 단순한 어휘지만 의미적 포함관계에서는 그 반대다. DEC는 의미의 단순성을 반영하여 PROFESSEUR의 의미를 PROFESSION을 사용하여 표상한다. 또한 HOMME(남자)와 FEMME(여자)는 심리적으로 어느 것이 더 단순한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Wierzbicka의 분석에서와 같이 FEMME의 정의는 HOMME를 사용하지 않고도 가능하지만, HOMME의 정의는 FEMME를 참조해야 한다.

한편, «의미분해의 규칙»에 따라 모든 사전정의를 구성하고, 개별 정의항에 사용된 어휘들에 대해 이 규칙을 계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과정의 끝에는 더 이상 다른 어휘로는 의미를 정의할 수 없는 의미원소(primitif sémantique)에 이르게 되는데 한 언어 전체 어휘에 대해 이 작업을 수행하면 의미원소 목록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의미원소의 목록이 작성되면 전체 어휘를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여 일관된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미원소의 목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를 이용한 사전정의는 매우 길고 복잡한 의미기술을 요하게 되어 사전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주게 된다. 또한 의미의 최소단위까지 분해함으로써 인접한 어휘들 사이의 의미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 이와 같은 계속적 의미분해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DEC는 정의 어휘로 의미적으로 단순하면서도 제일 가까운 의미를 지닌 어휘를 사용할 것을 규칙으로 제시한다. 이를 «최소분해 규칙»이라 한다. 아래의 예는 PROFESSEUR의 의미기술이다.

- (21) 'personne qui 'en tant que, profession cause volontairement que Z apprenneIII.1b Y, en transmettant systématiquement à Z des connaissances (portant sur) Y ou des techniques (portant sur) Y, Y étant d'un niveau assez élevé (cette personne étant employée par un établissement d'enseignement W)'

(직업으로 Z에게 상당한 수준의 Y 또는 이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Z가 Y를 배우도록 하는 (교육기관 W에 고용된) 사람)

그런데, 위의 의미성분들 중 일부는 불어의 ENSEIGNER1(가르치다)의 어휘의미에 해당한다.

- (22) 'X enseigner1 Y à Z' = 'X cause volontairement que Z apprenneIII.1b Y, en transmettant systématiquement à Z des connaissances (portant sur) Y ou des techniques (portant sur) Y'(X가 Z에게 Y 또는 이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을 체계적으로 전달하여, Z가 Y를 배우도록 한다)

따라서, 위의 PROFESSEUR의 정의항은 ENSEIGNER1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이 재정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ENSEIGNER1를 최대블록이라 한다.

- (21') 'personne qui 'en tant que, profession ENSEIGNE1 à Z Y d'un niveau assez élevé (étant employée par un établissement d'enseignement W)'

아래의 예문은 ETUDIANT(학생)의 정의항이 'de sexe masculin(남성의)'의 성분을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22) *Jeanne est un bon étudiant en math(잔은 수학을 잘 하는 학생이다)

따라서, 이 어휘에 대해서 'personne de sexe masculin qui ...(... 남성의 인간)'와 같이 정의항이 구성된다. 이 성분들은 «최소분해 규칙»에 따라 'homme qui ...(... 남자)'로 변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아래 예문들의 ETUDIANT의 용법을 설명할 수 없다.

- (23) a. Un étudiant doit travailler beaucoup(학생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 b. Tu ne peux plus vivre en étudiant!(너는 더 이상 학생으로 살 수 없다)
- c. Elle menait une vie d'(étudiant+*étudiante)(그녀는 학생의 삶을 살았다)

위의 예문들에서 ETUDIANT은 'de sexe masculin'의 성분이 삭제되어 유개념적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문맥에 따라 쉽게 삭제될 수 있는 성분들은 최대 블록을 형성하지 않는다.

4.4. 정의언어

DEC는 «표준화 규칙»을 통해 정의항에 사용되는 어휘를 통일하여 형식적이고 논리적인 사전정의를 구축하고자 한다. 이 규칙은 정의항의 메타언어가 중의적이지 않을 것과 동일한 의미내용을 하나의 어휘로 표상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먼저 DEC는 다의어 분할이 완결된 어휘들만을 사전정의에 사용함으로써 중의성을 해소한다. DEC에서는 다의어로 분할된 개별 어휘들이 약호화된 어휘구분 수표식(numéros lexicaux distinctifs)²⁴를 부여받고 있으며, 정의항의 어휘들은 이 약호 표지와 함께 사용된다. 이를 통해 정의항은 중의성이 완전히 해소된 하나의 의미내용만을 표상하게 되며, 정의항에 사용된 어휘를 모르는 사전사용자도 정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또한 자연언어처리의 관점에서 볼 때, 기계도 정의항에 사용되는 어휘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 많은 효용성이 있다.

«표준화 규칙»의 두 번째 제약은 동일한 의미내용을 포함하는 어휘들의 정의항을 동일한 어휘로 정의함으로써 전체 사전정의의 통일성과 일관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동일한 어휘를 표상함으로써 이 어휘들 사이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완전한 동의성을 보이는 어휘를 찾기란 쉽지 않으며 부분적인 동의성을 보이는 어휘들에서도 중의성의 문제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맥에서의 사용 가능성 및 관용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5. DEC 어휘의미 기술의 특성

지금까지 일반적인 어휘의미 기술의 문제점과 DEC 어휘의미 기술과 사전정의 표상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2에서 언급한 어휘의미 기술의 문제점

24.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병근·박진호 2000을 참고.

들과 관련하여 DEC에 표상되어 있는 어휘의미와 그의 표상 방법의 특징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5.1. 어휘의미의 특성

DEC의 어휘의미는 동의적 환언문으로 구축되는 의미표상, 특히 상황 의미로부터 추출된다. 상황 의미란 발화체가 전달하는 개별 상황에 대한 정보이며 상황을 구성하는 모든 개체(논항)들 사이의 관계에 해당하는 명제적 의미이다. 상황 의미의 변화는 개체의 삭제나 추가로 인한 관계의 변화 또는 기존 개체들 사이의 관계 변화를 의미한다. 따라서, DEC의 어휘의미는 발화체 상황 의미를 형성하는 성분들로 구성되는 외연적 의미(*sens dénotatif*)에 해당하며 항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시적 특성을 갖는다.

상황 의미의 지시적 특성은 DEC에 기술되는 어휘의미에 반영된다. 발화체의 통사구조를 결정하는 동사와 같은 술어는 상황 의미의 성분들 사이의 기본적인 관계를 그 의미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분석은 명사 범주의 어휘들에도 적용되어 특정 상황 속에서 파악되는 명사들의 의미는 상황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 한편, 지시적 특성은 구체적 대상을 지시하는 명사 어휘의 사전정의에서 확인된다. 이 어휘들의 의미는 대상의 구성적 속성들을 통해 기술된다.

그러나 DEC 방법론은 순수한 지시적 어휘의미론과는 구분된다. 지시적 어휘의미론에서는 대상을 한정하는 속성들이 어휘의미를 구성하는 것으로 분석한다. DEC는 이와 달리, 다양한 형식적 기준들을 통해 의미성분의 자격을 갖는 속성들만을 추출한다. 특히, 이 기준들은 언어적 관여성에 관한 기준들로, 추출된 의미 성분들은 어휘의 행태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것들이어야 한다. 의미표상의 관점에서 이러한 의미성분들은 어휘의 행태를 설명해 주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논항 성분은 어휘가 지배하는 논항의 수를 명시적으로 제시해 주고 문장의 구성에 관한 의미적 설명을 제공한다²⁵. 이런 점에서 DEC의 어휘의미는 어휘의 행태를 한정하는 기능적 특성을 갖는다. 이 기능적 특성이 지시대상 또는 이에 대한 지식과 어휘의미를 구분하여 준다. 즉, DEC는 어휘의미를 언어적 실체로, 그리고 백과사전적 지식 또는 개념과 분리되는 것으로 분석하는 이원론적 관점을 지향한다.

25. 사전정의가 어휘의미와 어휘·통사적인 결합관계를 설명하고 그 행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표상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설명결합사전이라는 명칭이 부여되었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DEC I, II, III을 참고.

5.2. 사전정의 표상의 특성

DEC의 사전정의는 의미분해 원칙과 최소분해 원칙에 따라 어휘의미를 성분들로 분해하여 표상한다. 사전정의는 대체가능성의 규칙에 따라 어휘와 의미적으로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어휘와 사전정의는 어휘가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문맥에서 대체될 수 있어야 하며 발화체의 의미에 아무런 변화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사전정의는 어휘의미가 포함하는 성분들만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모든 성분들을 누락하지 않고 표상해야 한다.

한편, DEC 사전정의에서는 자연언어의 어휘를 가공하여 어휘의미를 표상한다. 모든 성분들은 자연언어의 어휘를 통해 표상되고 최소분해 원칙에 따라, 통합되어 표상될 수 있는 성분들은 하나의 어휘로 기술된다. 사전정의는 성분간의 관계와 자연언어의 문법 규칙에 따라 모든 성분들을 배열한다. 따라서, 어휘와 동일한 의미를 갖는 사전정의는 어휘에 대한 일종의 환언문에 해당하는 환언적 정의의 특성을 갖는다. DEC의 사전정의는 자연언어를 통해 어휘의미를 설명하는 일종의 번역에 해당한다²⁶.

메타언어를 이용한 사전정의는 각 이론의 특수한 목적에 따라 행해진 것이 대부분이며, 따라서 대개의 경우 일반성과 총체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 않다. 반면, DEC는 부분적인 표상이 아니라 모든 성분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여 총체적인 특성을 제시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사전정의의 총체성은 성분들 사이의 관계에 근거하여 구조가 결정된다. 이는 사전정의에 그대로 반영되는 양상에서도 확인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동사 산다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기술될 수 있다.

(24) ‘돈을 주고 그 물건을 제 것으로 만들다’²⁷

(25) ‘값을 치르고 어떤 물건이나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다’²⁸

위의 두 사전정의는 의미적 직관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형식적이거나 총체적이지 않다. 예를 들어, 논항 구조의 관점에서 산다를 정의해 보면 (24)-(25)의 정의에서는 ‘파는 사람’이 나타나 있지 않으며 ‘사는 사람’도 명시적으로 표상되어 있지 못하다. 위와 같은 정의의 대안으로 우리는 논항 구조를 충실히 반영하여 산다를 다음과 같이 정의해 볼 수 있다.

26. Goddard 1998, pp. 10-11을 참고.

27. 연세사전 1999에서 인용.

28. 표준국어대사전 1999에서 인용.

(26) 누가 돈을 주어 누구로부터 물건이나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만들다

그러나, (26)과 같은 의미정의 역시 명시적이며 총체적이라 할 수 없다. DEC의 방법에 따른 다음과 같은 정의는 위와 같은 결점을 어느 정도 해결해 줄 수 있다.

(27) 'X가 Z가 요구하는 돈 W를 지불하고 또는 지불하기로 하고 Z에게서 Y의 소유권을 완전히 영속적으로 얻다'²⁹

(27)의 정의에서는 논항이 X, Y, Z, W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표상되어 있으며, (24)-(26)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은 '지불하고 또는 지불하기로 하고'라는 성분을 통해 구매의 조건이 보다 포괄적이며 총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의상으로+할부로) 사다에서와 같이 아직 돈을 치르지 않고 물건을 구입하는 행위를 효과적으로 포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전정의는 완전한 어휘의미를 설명하는 것은 물론, 술어가 구성하는 최대 논항 구조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그 어휘의 가능한 행태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러한 특성으로 DEC의 사전정의는 이론적인 타당성과 실용적 효용성을 갖는 것이다.

5.3. 메타언어의 특성

DEC는 자연언어 어휘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전정의의 정의항에 사용되는 어휘들의 명료성과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들을 사용한다. 중의성을 배제하기 위해 DEC는 이미 DEC에 기술된 어휘만을 정의에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로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전(불어의 경우 *le Petit Robert*)에서 분할된 어휘들을 사용한다. 특히, 사전에 분할된 의미들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사전에 활용되는 의미 구분 표지들을 이용한다. 한편, 동의어들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을 하나의 어휘로 일관되게 표상함으로써 사전정의의 통일성을 지향한다.

의미분해의 원칙에 따라 사전정의는 표제어 어휘보다 의미적으로 단순한 어휘들만으로 구성된다. 또한 이 어휘들의 의미를 다시 분해하는 방식을 통해 의미적으로 더 이상 분해될 수 없는 최소 의미 단위들에 도달할 수 있다.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최소 의미 단위들만으로 구성되는 사전정의가 가장 이상적인 표상 형태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최소 의미 단위들의 목록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실용적 측면에서 볼 때, 최소 의미 단위까지의 분해는 불필요하게 확장된 사전정의를 초래하게 된다. 또한 사전 사용자의 이해와 어휘들간의 의미관계 표상은 의미

29. 홍재성·김현권 2001 참고.

분해를 최소화하도록 요구한다. 따라서 DEC는 최소분해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DEC의 최소 의미 단위는 다른 어휘를 통해 설명될 수 없는, 즉 의미적 포함관계를 통해 구축되는 이론적 산물이다. 이런 점에서 의미적 포함관계와 언어적 보편성, 심리적 기본성을 고려하는 Wierzbicka의 의미원소와는 구분된다³⁰.

6. 결 론

우리는 본고에서 언어사전의 어휘의미 기술과 표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한 방안으로 DEC의 정의에 의한 의미표상의 특징, 정의구성의 원칙과 방법을 살펴보았다. DEC의 어휘의미는 발화체가 전달하는 상황 의미로부터 추출되며 어휘의 형태·통사적 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DEC는 다양한 언어적 기준들을 이용하여 정밀한 어휘의미를 구축하고 있다. DEC는 온전한 어휘의미의 표상을 위해, 의미성분들 사이의 관계와 개별 성분들이 전체 어휘의미 내에서 갖는 지위를 분석한다. DEC는 이를 기반으로 개별 표제어의 의미를 사전 정의의 형식으로 표상하고 있다.

DEC의 사전정의는 자연언어를 이용하는 환언적 정의를 통해 어휘의미를 표상하고 있다. DEC는 자연 메타언어에 의한 의미표상이 갖고 있는 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의에 사용되는 자연언어 어휘들과 전체 어휘부의 의미표상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규칙들과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DEC는 의미표상의 가장 큰 문제점인 순환정의와 정의의 모호성을 해소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DEC의 방법론은 새로운 한국어 사전의 구축에 활용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된다. 이제까지의 연구와 노력으로 한국어 사전의 어휘의미 기술과 표상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DEC와 같이 체계적으로 정밀하게 정보를 분석하여 이를 일관된 원칙에 의거하여 표상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본고에 후속되는 작업에서 일부 한국어 어휘의 DEC식 의미표상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Cruse, D. A. (2000a) 'Aspects of the Micro-structure of Word Meanings', in Ravin & Leacock 2000.

30. Goddard & Wierzbicka (eds) 1995 참고.

- _____ (2000b) *Meaning in Language: An Introduction to Semantics and Pragmatics*, Oxford University Press.
- Goddard, C. (1998) *Semantic Analysis, A Practical Introduc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Goddard, C. & Wierzbicka, A. (ed.) (1995) *Semantic Primitives and Lexical Universals*, Amsterdam, John Benjamins.
- Kleiber, G. (1999) *Problèmes de sémantique. La polysémie en question*, Presses Universitaires du Septentrion.
- Mel'čuk, I. A. (1989) 'Semantic Primitives from the Viewpoint of the Meaning-Text Linguistic Theory', *Quaderni di semantica* 10 : 1.
- Mel'čuk, I. A., Clas, A. & Polguère, A. (1995) *Introduction à la lexicologie explicative et combinatoire*, Editions Duculot.
- Ravin, Y. & Leacock, C. (ed.) (2000) *Polysemy: Theoretical and Computational Approaches*, Oxford University Press.
- Wanner, L. (ed.) (1996) *Lexical Functions in Lexicography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John Benjamins Publishing Company.
- Wierzbicka, A. (1992) 'Back to definitions: Cognition, semantics, and lexicography', *Lexicographica* 8.
- 이병근·박진호 (2000) '결합설명 사전의 어휘 기술 방법론', 인문논총 43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홍재성·박동호 (2000) '멜추크의 의미·텍스트 대응모형 연구', 인문논총 43집,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홍재성·김현권 (2001) 'Mel'čuk의 의미·텍스트이론과 한국어 동사 사다/팔다의 의미기술', 한국언어학회 2001 여름연구회 발표 논문 자료집, 한국언어학회.
- Mel'čuk, I. A. et al. (1984, 1988, 1992, 1999) *Dictionnaire explicatif et combinatoire du français contemporain: recherches lexico-sémantiques I-IV*, Les Presses de l'Université de Montréal.
- 연세한국어사전 (1999) 연세대학교 언어정보개발연구원 편, 두산동아.
- 표준국어대사전 (1999) 국립국어연구원 편, 두산동아.

ABSTRACT

Description of Lexical Meaning in the
Explicative and Combinatory Dictionary

Chai-Song Hong · Dong-Ho Park · Kil-Soo Ko

This paper will explore and evaluate the «Lexicographic Definition» in the Explicative and Combinatory Dictionary(ECD), in particular, focusing on its methodology of description and representation of lexical meaning.

Lexical meaning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features of a linguistic dictionary, however, due to its inherent nature, its description and representation in a dictionary precipitates many problems. The crux of the problem is that each word has meanings behind its form and shows semantically continuous variations when combined with other words and phrases. A lexicographer must then determine the full content of the lexical meaning and extract its components, and separate every meaning which is linguistically distinguished from other variations. Moreover, a good dictionary needs and an elaborate methodology for the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adequate representation of the meaning.

The ECD, based on the Meaning-Text Model, presents comprehensive rules and criterion addressing precisely these problems. These rules and criterion are the minimal(fundamental) conditions necessary for the coherent representation of full lexical meaning. Furthermore, the ECD represents Lexicographic Definitions in a concise, yet natural(accessible) language. Its definitions describes denotational meaning which are composed of situational information of the sentences usage. This meaning has an additional functional dimension in that its content and component explain and predict the full range of word behavior in any given circumstances.

The direct result of this research can be applied to Korean dictionaries and used to improve their semantic descriptions and representations.

홍재성

151-74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전자우편 : cshong@snu.ac.kr

박동호

151-74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전자우편 : tilri24@snu.ac.kr

고길수

151-745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산 56-1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불어불문학과
전자우편 : gogiri@snu.ac.kr